

기초연금 수급률 80% 전남 노인 '서글픈 1위'

복지부 공개 '통계로 본 2022년 연금'

소득 하위 70% 월 30만원 지급
완도군 88.8%·고흥군 88.7%
광주는 67.2% 전국 평균 수준
긴축재정에 기초복지 열악 우려

전남지역 노인들이 소득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탓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고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자칫 노인 빈곤율이 높은 전남과 전북·경북 등에 대한 기초 복지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67.4%)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무엇보다도 수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과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의 수급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남의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80.2%로 전국 1위였으며, 이어 경북(75.9%)과 전북(75.6%)이 높았다. 광주는 67.2%로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시·군·구 단위에 살피보면 가장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곳은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완도에 이어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는데 이외에도 장흥(85.8%), 해남(85.2%), 함평(85%), 보성(84.9%), 영암

(84.7%) 등 전남지역 지자체가 8곳이 1-8위를 기록했다.

특히 완도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수급률 1위를 기록했고 고흥과 신안, 진도는 상위 2-4번째를 번갈아가며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71.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북구(69.1%), 남구(68.3%), 동구(62.6%), 서구(61.8%)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 26.2%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만이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 서울에서도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에 달해,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한편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은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분권·균형발전 '지방시대' 연다



수능 2주일 앞...엄마의 기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일 앞둔 1일,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예불을 드리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지방시대위, 제1차 종합계획
광주대도시권강화 프로젝트
전남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와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등을 통한 '광주대도시권 강화'를 위한 광역발전축 구축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전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등을 통해 전남의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구축도 기대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이같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포함해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상향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가 이번 종합계획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합계획에서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를 열어갈 두 바퀴로 꼽은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의 경우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육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5G벨트 조성 및 공공형 중전부지 그린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이 '공간발전구상'에 담겼다.

또 전남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순천정원도시 조성,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국립 갯벌 습지 정원 조성, 국립 난대수목원 조 기 조성, 다도해 선사인쇄이 해양관광도로 건설 등이 공간발전구상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면제되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중대재해 사업장 사법처리는 하세월 >6면
- 전남 어촌 바다 이야기-여수 금붕어촌계 >11면
- 가수 변진섭과 함께한 '10월의 마지막 밤' >20면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바이탈뷰티
Revitalizing Ginseng and Deer Velvet Ampoule
25g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